



## 한국, UAE와 백년대계 인력 교류 협력 한국-UAE 상호 인턴십 사업 추진 현황과 전망

안홍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회장



- 한양대 전기공학과 졸업
- 한국전력공사 입사(75)
- 한전 KEDO 원전처장, 금호원자력본부 본부장
- 한전 전력연구원 연구소장
-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사무총장 역임
-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회장(13~)

2009년 UAE 원전 수주 이후, 한국과 UAE 양국 청년들의 공동 교육 훈련, 인턴십 등 인력 교류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14년 대통령 UAE 방문 시, UAE와 인턴십 및 신입 사원 채용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는 UAE와 자국 대학생들을 상대국 원전 현장에 파견하는 청년 인력 상호 교환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UAE 바라카 원전 현장에서 체계적인 교육 훈련

올해로 제2기를 맞이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최초의 한국형원전 수출 프로젝트인 UAE 바라카 원전 현장에서 ENEC(UAE 원자력공사) 멘토링 프로그램에 의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소재 10개 대학교에서 선발된 대학생 27명이 1월 3일부터 아부다비에 있는 ENEC 본사 및 바라카에 있는 원전 건설 현장에 파견되어 총 7주간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며, 원자력 HSE, 원전 사업관리, 품질 관리,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분야별 공정 등 다양한 실무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UAE 인턴십과 더불어 올해 중반에는 UAE의 원자력 관련 학과 대학생들이 한국에 파견되어 우리나라 원전 현장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등 원전 관계사에서 약 6주간 인턴십을 수행할 예정이다.



ENEC Hammadi 사장(가운데)과 함께 하고 있는 1기 인턴십 참가자들



바라카 현장 교육

특히 이 기간에는 기존 두 차례의 인턴십을 수행했던 한국 학생들과 UAE 대학생들과의 만남의 장이 마련되어 양국 청년들 간 문화 교류의 장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작년에 시행한 제1기 ENEC 인턴 프로그램에서는 30

명의 우리나라 대학생이 UAE에서 8주간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무사히 복귀한 바 있다.

큰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출국한 학생들은 특유의 적응력과 친화력으로 한국 청년들의 열정과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그 중 우수한 역량과 성실한 태도를 보여준 학생들은 ENEC 멘토들로부터 입사 추천서를 받기도 하였으며, 한국인에 대한 기대치를 한껏 높이는 역할을 했다.

업무 이외에도 학생들은 필리핀, 네팔 등 제3국 노무자들과 맨발 축구를 하며 국적을 아우르는 우정을 쌓는 등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다. ENEC 또한 경영진의 큰 관심 하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착수식 및 수료식에는 하마디 ENEC 사장이 직접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건설 현장에서의 8주 체류가 결코 쉽지 않았을 학생들은 인턴십 수료식 날 스스로의 성취감에 큰 감회를 느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ENECA부다비 본사 교육



바라카 현장의 주조정실 시뮬레이터 실습

## 국제적 역량 키워 세계 원전산업의 주역으로 성장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에서는 인턴십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ENEC의 한국인 신입직원 채용 프로그램의 홍보 및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역시 양국 정부가 MOU를 맺어 진행하는 사업으로, ENEC은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신입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2015년도에 총 15명의 한국인 대졸자를 신입 직원으로 채용하였으며 현재 신입 사원 직무교육이 진행 중이다.

올해 ENEC 추가 채용 계획이 확정되면 협회에서는 다시금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금번 ENEC 신입 직원 채용 전형에는 기존 1~2차 인턴십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특별 가산점이 인정되어 채용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양질의 해외 일자리를 제공하므로 UAE를 발판으로 제3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한국과 UAE가 국가의 백년대계인 인력 교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양국간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UAE의 미래를 만들어갈 청년들이 양국의 원전 건설 현장에서 다국적 전문가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원전 프로젝트 실무를 직접 경험하고 국제적 역량을 키워 궁극적으로 세계 원전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원전수출협회 또한 한국의 원자력산업의 노하우, 경험, 지식을 미래 세대 리더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이러한 지식 습득 교육 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취업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역량 강화와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